

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Diakonos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N. Collins
- Focused on the Gospel of John -**

유 용 옥 (Yong-Ouk You)**

ABSTRACT

‘Diakonia’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on of Christian social welfare activities, church services and relief. The reason is that the origin of the word ‘diakonos’ means ‘a person who is waiting at the table’ traditionally. However John N. Collins interpreted the original meaning of diakonia as ‘go-between’ or ‘messenger’. In the Gospel of John, the use of diakonia to refer to Jesus’ Ministry has never appeared, but the spirit of diakonia appeared in Jesus’ Ministry in the Gospel of John. Jesus has a self-consciousness that He is the Go-between in the Gospel of John. Another self-consciousness that Jesus has is the Messenger of His Father. Jesus has been the exclusive and chosen only Diakonos of God the Father, but His Ministry of Diakonia has been succeeded to his disciples and the church. The disciples and the church are commissioned by the Diakonos Jesus to perform the mission as the mediators between God and the world and as messengers of God on His behalf.

Key words: Diakonos, John N. Collins, go-between, messenger, mission

* 2020년 11월 10일 접수, 12월 14일 게재확정

** 원광대학교(Wonkwang University), 치과대학 교수,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gene7788@gmail.com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I. 들어가는 글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더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 불의, 불평등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향한 섬김을 대변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김옥순, 2016: 574). 그 이유는 디아코니아란 어원의 출발이 신약시대 이전 헬라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식탁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드는 것이란 의미에서 출발하여, 기독교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최광수, 2007: 104).

그러나 존 콜린스(John N. Collins)는 성서와 헬라문헌을 연구하여 디아코니아의 원래의 의미가 전통적 해석과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석은 용어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원래의 그 의미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게 된다(Collins, 1990: 96-132; Gooder, 2006: 34-49; 박성용, 2011: 45). 콜린스는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go-between(중재자, 위임받은 자, 대리자, 중보자)’의 의미와 ‘emissary 또는 messenger (사자, 전령)’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Collins, 1990: 77-216; Gooder, 2006: 34-49).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공동체 문서에서 예수의 사역을 지칭하여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한 용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성종현, 1996: 8-16).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콜린스가 주장하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노스 예수를 조명하고자 한다.

II. 디아코니아의 의미

신약성서에는 여성명사인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가 총 34회 등장하며, 동사인 디아코네인(*διακονεῖν*)이 총 35회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성종현, 1997a: 17). 신약성서에서 디아코니아는 전통적으로 ‘섬김’이나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해 왔다. 디아코니아는 신약성서의 디아코네인으로부터 파생된 말로써, 디아코네인은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해 왔으며, 이 말은 헬라문화권의 일상적인 세속사에서 ‘식탁에서 시중들다’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의미가 넓어져 ‘공

급하다, 보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적 견해이다(최광수, 2007: 104).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성서에 디아코니아가 사용된 용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는데, 동사형 디아코네오(διακονέω)는 마태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1장 13절,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 '수종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25장 44절에는 '공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27장 55절, 마가복음 15장 41절, 누가복음 8장 3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명사형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로마서 12장 7절과 15장 31절,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에는 '섬기는 일'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7절, 골로새서 4장 17절, 디모테전서 1장 12절에서는 '직분'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사도행전 21장 19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봉사'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도행전 1장 17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디모테후서 4장 5절에서는 '직무'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는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명사형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는 마태복음 20장 26절, 마가복음 9장 35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섬기는 자'로 사용되었으며,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사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2장 5절과 9절에서는 '하인'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수종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서 16장 1절,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일꾼'이란 의미로 사용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사역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는 '짓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테전서 3장 8절과 12절에서는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최광수, 2007: 105).

신약성경에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는 종속관계에 있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섬김 즉 '천한 섬김'으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방법이었다(최광수, 2007: 105-106). 이런 해석적 방법으로 인하여 베이어(H. W. Beyer)도 디아코니아를 *TDNT(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Kittel)*에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waiting at table)이나 넓은 의미에서는 육신의 필요를 제공하는 것(provision for bodily sustenance)로 규정하고 있다(Gooder, 2006: 34-35; Beyer, 1964: 81).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으로 봉사를 이행하는 것(discharge of service in genuine love)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적 방법을 베이어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디아코니아 대한 이런 해석을 *TDNT*에 공식화하면서 이후 학자들에게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후 베이어의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헬-영사전(*Greek-English lexicon*)에도 수록되었고(Louw and Nida,

1989: 458), 한스 쿵(Küng H)의 교회론에 관한 저서들(Küng, 1967: 391-92)과 엘리자베스 피오렌자(Fiorenza E)의 페미니즘에 대한 저술(Fiorenza, 1988), 제임스 모레오 바넷 (Barnett JM)의 집사 직분에 대한 연구(Barnett, 1981; 4-42), 슈바이처가 *The Anchor Bible Dictionary*에 기술한 “초대교회의 사역(Ministry in the Early Church)”에도 수록되었다(Schweizer, 1992).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발행한 문서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에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는 봉사(service to which the whole people of God)로 규정하고 있다(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M7).

그러나 호주 멜버른의 가톨릭 신학자인 콜린스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사용된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 놓게 된다(Collins, 1990: 77-216). 그는 성서와 헬라문헌에 나와 있는 ‘디아코니아’에 관련된 용어를 심도 있는 언어학적 연구를 하여 1976년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디아코니아, 고전의 재해석(*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콜린스가 주장하는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전통적 해석과는 많은 차이를 갖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콜린스의 견해가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Gooder, 2006: 35). 먼저 콜린스는 신약성서가 저술되기 이전 헬라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탐구한다. 그는 플라톤의 저서와 헬라문헌 그리고 이집트 파피루스 등 탐구하면서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중재자 (go-between)의 의미로 주로 쓰였음을 확인했다(Gooder, 2006: 35).

신약성서의 성문화된 가장 초기문서들은 바울 서신서들로 알려져 있다. 콜린스는 바울이 주후 55-56년경 고린도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의미를 파악한다. 콜린스는 고린스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 6장 13절 및 11장 23절에서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대변인(spokesperson)의 의미와 어떤 경우에는 ‘중재(mediation)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파악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9절에서

“둘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διάκονος)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διάκονος)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διάκονος)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διάκονος)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개역개정)

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의 공동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율법은 석판에 새겨진 문자로서 결국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비

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였지만 그 얼굴에는 너무나 찬란한 광채가 빛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문자의 심부름꾼(διάκονος)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성령의 심부름꾼(διάκονος)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공동번역)

사도바울은 디아코노스의 의미를 하나님의 ‘문자의 심부름꾼’ 즉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oder, 2006: 35). 또한 콜린스는 사도 바울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를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사자 (emissary)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임무를 띤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메신저(messenger)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Benedict, 2016: 136-147). 이러한 콜린스의 해석은 디아코노스가 종속관계에 있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섬김 즉 ‘천한 섬김’으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전통적 해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콜린스는 저작연대가 주후 6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 디아코니아의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 저술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개역개정)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NIV)

“καὶ γὰρ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οὐκ ἦλθεν διακονηθῆναι ἀλλὰ διακονῆσαι καὶ δοῦναι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λύτρον ἀντὶ πολλῶν.”(SLBGNT; Holmes, 2010)

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로써 문장을 분리함으로써 디아코니아를 단순한 섬김 또는 봉사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콜린스는 이 말씀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으로 문장을 분리하여 해석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이며, 마가복음 10:45절 헬라어 원문에서 ἀλλὰ가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이며, 두 번째 등장하는 ‘καὶ’는 ‘διακονῆσαι’와 δοῦναι를 연결하는 등위접속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Gooder, 2006: 41). 즉 ‘인자가 온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 온 것이라’ 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즉 디아코노스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섬기는자’ 즉 ‘중보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콜린스는 저작연대가 주후 6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추정되는 사도행전에서 6:1-4을 분석한다. 사도행전에서 6장 1-4절을 살펴보면

“In those days when the number of disciples was increasing, the Grecian Jews among them complained against the Hebraic J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overlooked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 (διακονία). So the Twelve gathered all the disciples together and said, “It would not be right for us to neglect the ministry of the word of God in order to wait (διακονεῖν) on tables. Brothers, choose seven men from among you who are known to be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We will turn this responsibility over to them. and will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διακονία) of the word.” (NIV)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개역개정)

로 NIV에 번역되어 있다. 콜린스는 이러한 번역이 그 당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in the daily distribution of food”는 “in the daily ministry” 즉 ‘매일 말씀사역’이 더 적당한 번역이라고 본다. 또 “in order to wait on tables”도 “to minister at table” 즉 빵을 나누며 말씀사역을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Gooder, 2006: 44). 결국 디아코니아의 바른 해석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선택된 일곱’은 일곱 집사(deacon)로 알려져 있고, 일곱 집사의 임무가 사도들과는 달리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누가는 선택된 일곱에 대하여 집사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이 때 선택된 빌립이나 스테반의 사역이 주로 설교와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으며(Gooder, 2006: 44), 그들의 구제사역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선택된 일곱’은 예수의 생전에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2사

도와는 구별되지만, 그들의 직무는 12사도들의 사역을 보좌하고 승계하여 말씀과 전도 사역의 확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Collins, 1990: 230-231),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곱 집사의 직무와는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서 중 비교적 후기(주후 80-100년)에 성문화된 문서인데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와 관련된 용어는 총 6회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2장 5절 및 9절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2회 등장하며,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1회 등장하고, 요한복음 12장 26절의 예수의 강화에서 3회 등장한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2장 5절 및 9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διακόνοις)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2:5),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διάκονοι) 알더라”(2:9, 개역개정).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ιακόνοις는 개역개정에는 ‘하인들’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ants’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 διακόνοις는 단순히 천한 노예라는 의미가 아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손님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대리인, 수행원) 또는 주인과 손님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자의 의미로 볼 수 있다(Collins, 1990: 245).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δῆκόνει),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새번역)

“Here a dinner was given in Jesus’ honor. Martha served(δῆκόνει), while Lazarus was among those reclining at the table with him.”(NIV)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ῆκόνει는 새번역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로 또 개역개정에서는 ‘일을 하다’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ed’로 번역되어 있다. Δῆκόνει를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면 마르다의 일은 단순히 노예가 주인에게 시중드는 천한 일이 아니라, 음식을 주방에서 가져와 식탁으로 나르는 행위 (전달하는 행위)로부터 출발한 용어이며, 마르다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찬의 주관자로서 음식을 배설(排設)하는 주인의 역할을 설명한 용어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예수의 강화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섬기(διακονῇ)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διάκονος)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διακονῇ)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공동번역)

“Whoever serves(διακονῇ)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my servant(διάκονος) also will be. My Father will honor the one who serves(διακονῇ) me.”(NIV)

로 표현되어 있는데, διακονῇ와 διάκονος는 공동번역에서 ‘섬기다’와 ‘섬기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고, NIV에는 ‘serves’와 ‘servant’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διάκονος는 단순히 종으로서 천한 섬김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διάκονος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길 만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Collins, 1990: 48). 콜린스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διακονῇ와 διάκονος를 해석한다면 ‘누구든지 나의 대리자, 메신저의 역할을 하려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의 대리자, 메신저도 역시 거기 있을 것이다. 나를 대리하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가 승귀하신 후 제자들의 주된 사역을 예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그리고 예수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III. 중재자로서 디아코노스 예수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예수의 사역을 지칭하여 디아코니아라고 사용한 용례는 없다.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의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요한공동체의 문서를 살펴보면 예수의 자의식 가운데에는 중재자로서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예수의 자의식이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잘 드러나 있다(Burge, 2010: 593).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개역개정)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만민에게 영생주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예수가 아버지의 통치와 구원의 중재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탄원한다. 요한복음 17장 9-1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개역개정)

예수는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이며, 자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고 하나 되시도록 탄원하시고 있다. 즉 요한복음 17장 9-11절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중재자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자의식’은 콜린스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디아코노스는 ‘대속적인 죽음으로 섬기는 자’ 즉 ‘중보자’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Gooder, 2006: 41).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요한도 또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간의 중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세례요한은 예수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으로,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재자로 표현하고 있다.

중재자로서 예수는 네레이(Jerome H. Neyrey)의 논문 「“I Am the Door” (John 10:7, 9): Jesus the Broker in the Fourth Gospel」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Neyrey, 2007: 271-291). 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개자(Broker)로 설명하였으며, 후원자-중개자-클라이언트 모델(patron-broker-client model)로 제시하였다(Neyrey, 2007: 281). 먼저 후원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름인 아버지(Father)로 표현하였다. 아버지이신 후원자는 그의 대사(ambassador)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7). 후원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그의 중재자로 승인하셨다(요 6:27, 10:36). 후원자의 “인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예수를 후원자의 임무를 위해 독점적으로 선택된 중재자임을 나타낸다. 예수는 선택된 중재자로서 클라이언트를 위해 자기목숨을 내어

놓았다(요 10:11, 14-15). 예수는 자신이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재자임을 주장한다(요 14:6). 클라이언트가 예수를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재자로 인정할 때만이 후원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요 13:20). 즉 법적 대리인인 중재자를 믿는 것은 법적 대리인을 보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법적 대리인인 중재자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대리인을 보낸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다(요 8:46-47). 따라서 중재자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후원자인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IV. 메신저로서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공동체 문서에 나타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다(Burge, 2010: 598).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예수의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예수는 자신의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자의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개역개정)

예수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임무를 통하여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메신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수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이시란 자의식을 갖고 있다.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파송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밝히고 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도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개역개정)

예수는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세상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파송받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메신저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외에도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26-28절에도 예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변증하는 장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드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개역개정)

본문에서 예수는 자신을 파송한 존재가 아버지이며,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이 아니며 전적으로 아버지께 위임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함으로 메신저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 8:16),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요 8:18)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신저임을 드러내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요 8:42)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 파송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파송된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과 논쟁할 때에 예수 자신의 말씀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말씀의 메신저임을 주장하고 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요 12:49)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메신저임을 드러내고 있고, 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요 12:50) 라는 표현은 자신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3장 32-34절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개역개정)

세례요한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예수의 사역이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종속되어 있으며 일체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콜린스는 사도행전 6장 1-4절을 해석하면서 ‘디아코니아’의 올바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의 자의식은 콜린스가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Gooder, 2006: 44).

V. 승계되는 디아코노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한 예수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디아코노스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καθὼς ἀπέσταλκέν με ὁ πατήρ, καὶ γὼ πέμπω ὑμᾶς*)”라고 말한다. 노드스트로케(Kjell Nordstokke)는 이 문장에 나오는 “As (것 같이)”가 헬라어 “*καθὼς*”로 영어로는 “in the same manner”의 의미라고 주장한다(Nordstokke, 2014: 76). 즉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 파송 받은 것처럼, 사도들을 디아코노스로 보낸다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도들을 디아코노스의 승계자(*διάδοχος*)로 임명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아코노스의 승계(*διαδοχή*) 사역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와 베드로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7-18)”(개정개정)

이미 예수는 지상사역 기간 동안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기대에 부합하는 신앙고백을 하자, 그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 예수 공동체와 그 사역의 승계를 선언한 바 있다(마 16:18-19).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 공동체의 수위권자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도와 교회위에 위임된 디아코니아 사역의 위임명령을 재확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요 21:17-18, 19, 22; 요 20:23). 요한공동체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

아코노스였지만, 중재자로서 또 메신저로서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사도들과 교회 위에 승계된다고 이해하고 있다(요 20:23; 요 21:17-18). 따라서 요한공동체는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 명령을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요한공동체는 사도와 교회위에 승계되는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해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담화(요 14-16장)를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께도 돌아가야 할 것과 자신의 대리자로서 성령의 파송을 예언한다. 이후 부활한 예수는 사도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수여하신다(요 20:22).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는 성령이 사도들안에 거할 것임을 언급한 반면 요한복음 14장 20절과 15장 4절에는 예수가 사도들 안에 거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고병찬, 2018: 72), 요한공동체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며(김문현, 2012: 355),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로서 부활한 예수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문현, 2012: 364). 요한공동체 안에 예수가 ‘파라클레토스 안에서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in and through Paraclete)’ 임재하고 또 ‘파라클레토스로서(as the Paraclete)’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김문현, 2012: 349).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개역개정)와 the Counselor(NIV)로 번역되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대언자(개역개정)와 an advocate(KJV)로 번역되고 있으나 고병찬과 박경미는 중보자(Mediator), 중재자(Intercessor), 돕는자(Helper)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제안하고 있다.¹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예수의 사역도 파라클레토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보자’로 해석한 고병찬의 해석방법에 따를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가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요한공동체의 성령의 이해는 카리스마(χρῖσμα)적인 측면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누가 공동체나 바울의 인식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이한수, 1994: 109).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메신저이자 중재자로 보내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요 14:16). 예수께서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서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이, 예수의 요청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을 또 다른 중재자로서 제자들과 교회위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의 활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활동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요 16:13)(송진순, 2018: 32). 예수가 지상사역 기간에 예언한 임박한 파루시아(παρουσία)가 예수의 승귀 이후에 장시간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의 임재와 활동이 부재한 교회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요한공동체는 이 위기를 성령을 통한 예수의 현존이란 관점에서 신학적 답변을 제

1) 고병찬은 BDAG를 인용하며, παράκλητος의 의미가 중보자(Mediator), 중재자(Intercessor), 돕는자(Helper)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고병찬, 2018: 70; Bauer, 2000). 박경미도 παράκλητος의 의미를 중재자, 대변자, 돕는자, 위로자로 설명한다(박경미, 2013: 360-363).

시한다. 즉 예수의 승귀 이후에도 예수의 임재와 활동이 성령을 통하여 지속된다는 것이다(이한수, 1994: 78). 예수는 승귀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이다(박경미, 2013: 383). 따라서 예수의 승귀 이후 사도들과 교회의 활동은 결국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한 예수와 아버지의 뜻 따른 메신저로서 중재자로서의 활동인 것이다(박경미, 2013: 383). 사도시대 이후 사도들의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계승된다. 그러므로 중재자로서 메신저로서 예수의 디아코니아 사역도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와 제자들 위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브리드(Gert Breed)는 예수의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디아코노스이며, 디아코노스는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고 주장한다(Breed, 2015: 1-8). 하나님은 살아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열방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의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백성의 마음에 임하고 이 땅의 혼돈된 질서가 회복되도록 그의 자녀들의 디아코니아를 사용하신다고 주장한다.

VI. 선교학적 적용

본 논문에서 제시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선교학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 사회복지 활동의 의미를 넘어 선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봉사와 섬김으로 한정될 수 없다. 디아코니아는 예수가 인류를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하나님과 인류가 화해할 수 있었듯이(Strohm, 2016: 20-27), 지금도 하나님과 인류의 화해를 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이웃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가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섬기셨듯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메신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디아코노스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메신저로서 또 중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이다. 김은수는 디아코니아를 하나님 존재 양식의 내적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김은수, 2014: 20). 하나님은 예수의 중보를 통하여 인류와 화해하였고, 예수는 구체적인 중보의 삶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 주었으며,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위에 임재하시고 계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역이 하나님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디아코니아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디아코니아의 새로운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독교적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선교학의 진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된 강조점은 변화되어 왔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가 강조되었었다.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적인 승리의 그리스도가 강조된 것이다(김은수, 2013: 63-64). 이는 19세기 서구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에 힘입어 서구 교회가 기독교를 지리적으로 널리 포교한 것에 근거한 낙관적이고 승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거치면서 서구 교회의 낙관적 사고는 깨어지고, 기독교가 세속주의와 타종교의 도전받음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인 봉사와 섬김 그리고 희생이 강조되었었다. 선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이다. 그 후 1938년 탐바람 국제선교협의회 총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무’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히틀러에 의한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무솔리니에 의한 이탈리아의 독재 파시즘,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러시아의 공산혁명, 일본의 천황숭배 신도주의 등, 불의적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세계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니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강조되어야 할까? 성종현은 요한의 기독교론이 ‘로고스기독교론’임과 동시에 아들의 ‘파송기독교론’이라고 설명하였다(성종현, 1997b: 55).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파송의 주체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이자 사랑의 메신저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직무는 디아코노스로서 ‘중보자이자 메신저’의 직무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디아코니아의 새로운 성서 번역과 해석을 통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 성서 번역과 해석은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간주될 수 없는 필수적인 사역이다. 선교지에서 타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현지어 번역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선교지의 문화에서 번역은 언제나 복잡하고 다양한 신학적 굴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김상근, 2005: 73-109). 따라서 성서의 번역은 매우 복잡한 선교신학적 논의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는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의 ‘낮은 자의 섬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더 나가서는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콜린스의 연구에 의하면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중재자’의 의미와 ‘메신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견은 그 동안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성서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왜곡된 굴절을 해소하고, 선교적 지평을 넓혀 가는데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아코

니아의 의미는 단순한 봉사나 섬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섬김과 말씀,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II. 나가는 글

전통적으로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용어의 기원은 헬라문화권에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의 ‘낮은 자의 섬김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용되게 되었고, 더 의미가 확대되어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 기독교의 사회 복지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성서연구에 있어서 디아코니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겸손의 예수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헌신적 인간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디아코니아에 대한 콜린스의 새로운 해석을 소개하였다. 콜린스의 관점으로 볼 때 디아코노스의 본래 의미는 ‘섬기는 자’ 또는 ‘봉사자’라는 의미보다는 ‘중재자(또는 중보자)’의 의미와 ‘메신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콜린스의 관점에 대한 반론도 있다. 성종현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행한 세족사건(요 13:1-15)에 나타난 ‘섬김’의 행위가 예수의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적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성종현, 1997a: 20). 제임스 모레오 바넷은 디아코니아에 대한 단순한 언어학적 연구가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충분치 않으며, 교회에서 집사(deacon)란 직분이 수행하는 ‘봉사자’의 기능 또는 역할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Gooder, 2006: 47; Barnett, 1981: 21). 그러나 콜린스는 디아코니아라는 용어가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에, 교회내에서 집사의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Gooder, 2006: 48).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콜린스가 주장하는 디아코니아의 의미에 따라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요한복음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해볼 때, 예수는 중재자로서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세례요한도 예수가 중재자이며 메신저라고 인식하였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아코노스였지만, 그의 디아코노스 사역은 제자들과 교회위에 승계되었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보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명령을 받았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

제, 또는 고통받는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의 의미를 넘어선다. 디아코니아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말씀과 섬김,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사문 (1999). 구약에 나타난 섬김의 의미(디아코니아). **장신논단**, 15, 8-33.
- [Kang, S. M. (1999). The meaning of service in the Old Testament (diakoni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5, 8-33.]
- 고병찬 (2018). 요한복음에 나타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의 기능과 역할. **성경과신학**, 88, 61-83.
- [Go, B. C. (2018). The Function and Role of ‘Paraclete’ in the Gospel of John. *Bible and Theology*, 88, 61-83.]
- 김문현 (2012). 요한복음의 성령 이해. **신약연구**, 11(2), 337-367.
- [Kim, M. H. (2012). A Survey of the Johannine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Korean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 11(2), 337-367.]
- 김상근 (2005).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학과 선교 번역이론. **선교신학**, 10, 73-109.
- [Kim, S. K. (2005). The Semiology of Roland Barthes an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Theology of Mission*, 10, 73-109.]
- 김옥순 (2016). 디아코니아와 일반사회복지의 학문적 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8, 571-604.
- [Kim, O. S. (2016).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of a scientific interdisciplinary Fusion(?) of Diaconia and Social Welfare. *Theology and Praxis*, 48, 571-604.]
- 김옥순 (2009).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로서 신약성서속의 διακονεῖν어군의미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 185-225.
- [Kim, O. S. (2009). A study of the meaning of the word group διακονεῖν in the New Testament concerning the fundamentals of διακονία. *Theology and Praxis*, 20, 185-225.]
- 김은수 (2014). **사회복지와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E. S. (2014). *Social Welfare and Mi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은수 (2013).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E. S. (2013). *Current and Theme of Contemporary Mi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박경미 (2013).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ark, K. M. (2013). *With Jesus without Jesu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박성용 (2011). 디아코니아와 평화 - 하나님의 주권성을 갈등, 폭력 그리고 지배체제 위에 세우기. **신학논단**, 65, 43-71.

[Park, S. Y. (2011). Diakonia and Peace. *Theological Forum*, 65, 43-71.]

성종현 (1997a). 예수와 디아코니아. **성서학연구원심포지움**, 15, 17-25.

[Sung, C. H. (1997a). Jesus and Diakonia. *Symposium of the Institute of Biblical Studies*, 15, 17-25.]

성종현 (1997b). 에클레시아와 디아코니아. **장신논단**, 13, 49-68.

[Sung, C. H. (1997a). Ecclesia and Diakonia.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3, 49-68.]

성종현 (1996).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본 디아코니아와 한국교회. **교육교회**, 96(6), 8-16.

[Sung, C. H. (1996). Diakonia and the Korean Church from a Bib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Church*, 96(6), 8-16.]

송진순 (2018). 파라클레토스의 구현체로서 요한공동체(요16:7-15). **피어선 신학 논단**, 7(1), 26-49.

[Song, J. S. (2018).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aracletos of the Johannine Community based on the Gospel of John 16:7-15. *Pierson Journal of Theology*, 7(1), 26-49.]

이한수 (1994). 요한의 성령 이해. **신학지남**, 61(1), 77-109.

[Lee, H. S. (1994). John's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61(1), 77-109.]

최광수 (2007). 성경속의 디아코니아와 총체적복음사역. **총체적복음사역연구소 연구지**, 4, 104-110.

[Choi, K. S. (2007). Diakonia and Holistic Gospel Ministry in the Bible. *Holistic Gospel Ministry*, 4, 104-110.]

황순환 (2002). 구약성서에 나타난 디아코니아 정신. **선교신학**, 5, 1-12.

[Hwang, S. H. (2002). The spirit of diakonia in the Old Testament. *Theology of Mission*, 5, 1-12.]

- Barnett, J. M. (1981). *The Diaconate - A Full and Equal Order: A Comprehensive and Critical Study of the Origin, Development, and Decline of the Diaconate in the Context of the Church's Total Ministry and a Proposal for Renewal*. New York: Seabury Press.
- Bauer, W. (2000).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In Danker, F. W., Arndt, W. F., & Gingrich, F. W. (Eds)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ed, G. (2015). Finding guidelines on social change in the two-tiered narrative and diakonia in the Gospel of John.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1(2) a2666, 1-8.
- Benedict, Hans-Jürgen. (2016). 개신교 디아코니의 요구는 고전에 대한 오역에 근거하는가: 존 콜린스 '디아코니아' 연구. 이범성 역. 폴커 헤르만, 마틴 호르스크만 편, **디아코니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enedict, Hans-Jurgen. (2016). Are Protestant Diakoni's demands based on a mistranslation of the classics ? : Study of Diakonia of John N. Collins. Trans. Lee, B. S. In Herrmann, V. & Horstmann, H. (Eds.). *Diakoni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Beyer, H. W. (1964). Diakonew, Diakonia, Diakonos. In Kittel, G., Bromiley, G. W., & Friedrich, G.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Burge, Gary M. (2010). **NIV 적용주석 시리즈-요한복음**. 김병국 역. 서울: 솔로몬.
- [Burge, Gary M. (2010).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 John*. Trans. Kim, B. K. Seoul: Solomon Publishing Co.]
- Collins, J. N. (1990). *Diakonia, Re-interpreting the Ancient Sour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orenza, E. (1988). 'Waiting at Table': A Critical Feminist Theological Reflection. In Greinacher, N., Mette, N., & Gardiner, J. A. (Eds.). *Diakonia: Church for Others*. Edinburgh: T&T Glark.
- Gooder, P. (2006). Diakonia in the New Testament: A Dialogue with John N. Collins. *Ecclesiology*, 3(1), 33-56.
- Holmes, M. W. (Ed.) (2010). *The Greek New Testament: SBL Edi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Küng, H. (1967). *The Church*. London: Burns & Oates.
- Louw, J. P. & Nida E. A. (1989).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2nd ed.).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 Neyrey, J. H. (2007). 'I Am the Door' (John 10:7, 9): Jesus the Broker in the Fourth Gospel.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9, 271-291.
- Nordstokke, Kjell. (2014). Diakonia according to the Gospel of John. *Diakonia*, 5(1), 65-76.
- Schweizer, E. (1992).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In Freedman, D. 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 Strohm, T. (2016). 디아코니의 성서 신학적 기초와 입문: 문제의 지평. 이범성 역. 폴커 헤르만, 마틴 호르스크만 (편저). **디아코니아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trohm, T. (2016). Diakoni's Biblical Theological Foundation and Initiation : The Horizon in Question. Trans. Lee, B. S. In Herrmann, V. & Horstmann, H. (Eds.). *Diakonia*.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World Council of Churches. (1982).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111.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M7.

존 콜린스의 관점으로 본 디아코노스 예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Diakonos Jesus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N. Collins
- Focused on the Gospel of John -

유 용 옥 (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

논문초록

‘디아코니아’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사회복지활동, 교회의 사회봉사와 구제를 대변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 왔다. 그 이유는 디아코니아란 어원의 출발이 일반적으로 하인들이 ‘식탁에서 시중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디아코노스(δίακονος)는 ‘식탁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콜린스(John N. Collins)는 성서와 헬라문헌을 연구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용어의 오해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원래의 그 의미는 ‘중재자(go-between)’의 의미와 ‘메신저(messenger)’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마가는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예수의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지칭한 용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콜린스가 해석하는 의미에서 디아코니아 정신은 요한복음 속의 예수의 사역 속에 살아 있다. 예수의 자의식 가운데는 중재자로서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예수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는 메신저로서의 자의식이다.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파송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자의식을 밝히고 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점적이며, 선택된 유일무이한 디아코노스였지만, 그의 디아코노스로서의 사명은 제자들과 교회위에 승계된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하나님 간의 중재자로서 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디아코노스 예수의 위임명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섬김과 봉사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넘어선다. 디아코니아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중보자와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계승하여, 말씀과 섬김 그리고 복음전도와 사회봉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어: 디아코노스, 콜린스, 중재자, 메신저, 선교.